

제3장

노동생명표 작성을 통한 중·고령세대의 은퇴연령 분석

제3장



박시내

제1절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노동력구조는 인구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인구구조의 세 개의 인구급층 봉우리가 노동력구조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다. 세 개의 인구급층 봉우리는 각각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로, 이들의 인구규모가 큰 만큼 노동력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며, 현재 우리나라 노동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¹⁾.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2011년 기준 48~56세로 통상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세대로 불리는 연령계층에 속해 있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정의된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이 ‘55세’이기 때문에 법·제도적 정의를 따른 것이다²⁾. 한편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평균연령은 ‘53세’로(2011년, 5월) 나타나며, 2010년 이후 조사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통상적으로 제도적 정년이 적용되는 연령이 ‘55세’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은퇴를 경험하는 시점은 그 보다 이른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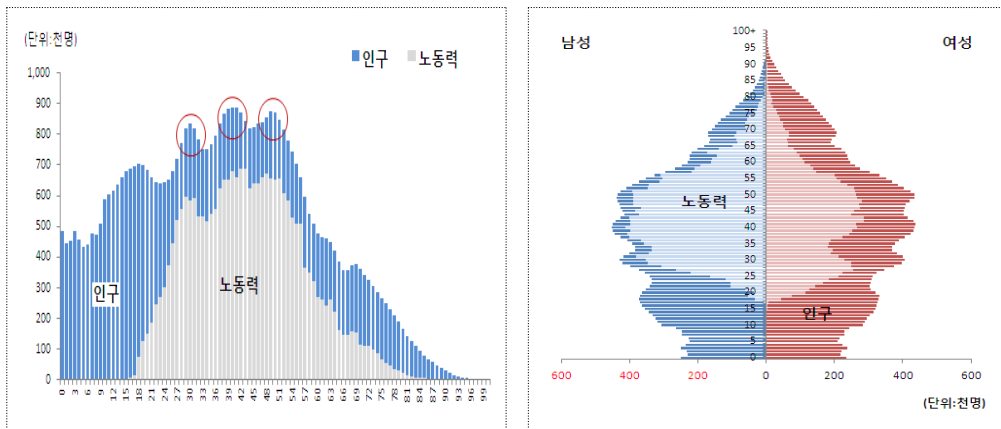
1)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 사이에 또 하나의 인구급층 봉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일본 등의 인구구조와 비교했을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따라서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을 지칭한다.

노동시장에서 중령자는 고령층 이전의 연령집단을 의미하며, 연구자에 따라 그 정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45~59세 연령집단으로 한정하여, 이들(중·고령층)의 은퇴연령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2011년 48~56세에 이르러 45~59세 연령집단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의 은퇴연령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큰 시사점을 갖을 것이다.

중·고령 세대(2011년 45~59세)는 1952~1966년 출생자로 총 인구규모는 1,129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22.7%를 차지한다(인구추계, 2011년). 이 중 남성은 569만 명, 여성은 560만 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약간 더 높다. 한편 중·고령 세대의 노동력 구조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835만 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34.5%이며, 이 중 남성은 495만 명(59.3%), 여성은 340만 명(40.7%)으로 남성 노동력의 비중이 18.6%p 높다.

우리나라 노동력 구조의 특징은 남성 대비 여성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그림 3-1]에서도 나타나듯이 30~50대 연령층 남성은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높다. 우리나라 여성의 지난 10년간 고용률은 51.1~53.2%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20~30%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고학력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어 온 현상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아이러니하다. 남성이 가구의 경제적 책임을 지는 가장문화와 성별분업(性別分業) 구조가 기성 세대에게 아직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노동력 구조에서 30대 초·중반의 함몰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40대 초반부터 여성 노동공급은 다시 증가하기는 하지만, 남성의 노동공급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료 : 인구추계(2011), 경제활동인구조사(2011)

[그림 3-1] 인구구조와 노동력구조



2010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기업의 정년시기인 ‘55세’에 도래하면서 대량은퇴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고령자에 대한 복지체계가 미비하고, 자녀지원에 대한 높은 부담은 고령층의 완전한 은퇴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되었다.

최근의 10년 간 중·고령 세대(45~59세)의 고용률 추이는 2001년 70.8%에서 2006년 72.1%, 2011년 74.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전반은 76.5%에서 78.4%로 2.0%p 상승하였으며, 50대 전반은 70.3%에서 74.7%로 4.4%p 상승하였고, 50대 후반은 62.5%에서 67.4%로 4.9%p 상승하였다. 특히 50대 후반의 고용률 상승 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데, 이는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령남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또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은퇴연령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식적인 은퇴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은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한국 고령자들의 실질은퇴연령은 60대 중·후반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식적인 은퇴 이후 고령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늦은 나이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며, 이러한 경향은 성별·부문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령자들의 직업이동 경로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고령자들은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유사 직군 내 직업이동을 하며, 이전 직장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근로조건 면에서 현격한 지위하락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중·고령 세대는 향후 어느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인가? 주된 일자리 은퇴 후에도 이들의 잔여 근로가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들의 최종 은퇴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본고는 통계청의 「완전생명표」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여 우리나라 중·고령 세대의 기대노동여명 및 예상 은퇴연령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은퇴연령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기술함으로써 노동시장 공급 측면의 변화와 시사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노동생명표 작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노동생명표 작성법을 설명한다. 3절에서는 지난 10년 간 노동기대여명과 예상 은퇴연령 추이를 살펴보고, 중·고령 세대의 은퇴연령 변화를 논의한다. 4절에서는 OECD 국가의 은퇴연령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국가별 연금수급년수를 전망한다. 5절은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함의를 제시한다.

제2절 분석방법 : 노동생명표 작성법

생명표(Life Table)란 사망확률에 기초하여 개인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을 산출한 표이다. 생명표를 통해 현재의 사망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각 연령계층이 몇 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기대여명에 현재의 연령을 더하여 개인의 평균 수명을 산출할 수 있다. 생명표 작성방식을 개인의 근로생애에 적용하면 노동기대여명(work-life expectancy)을 산출할 수 있다.

노동생명표는 생명표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연령별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entry) 및 이탈(exit)과정을 확률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력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 증가한 기대수명과 자녀세대의 교육 및 혼인의 지연은 현재 고령세대의 은퇴를 늦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과거 시점과 비교했을 때, “중·고령세대의 은퇴는 과거 세대에 비해 지연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 이 연구의 중요한 가정이다. 노동생명표에 의한 취업자의 최종 은퇴시점의 추정 은 향후 노동공급 추정 및 중·고령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함 함의를 갖는다. 또한 성별, 거주지별, 직종 및 업종별 노동기대여명의 차이는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적 유용성을 갖는다.

노동생명표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30년 Dublin과 Lotka에 의한 “Money Value of a Man”이다. 미국이 대공황기를 겪은 1930~1950년 기간 중 노동생명표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이의 대표적인 것이 S. Wolfbein과 H. Wool(1940)의 미국의 남성 노동생명표이다. Wolfbein & Wool은 경제활동인구의 최대값을 가상적인 잠재적 수준으로 가정하고, 이로부터 이중감소(double decrement) 모형³⁾으로 노동기대여명을 추정하였다. 반면 노동생명표를 단순한 감소모형으로 보는데 이의를 제시하는 입장이 있다. 그 이유는 청년기 남성은 사망확률보다 취업확률이 크며,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의 ‘M 커브’로 고용률이 증감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choen와 Woodrow(1980)는 기존 노동생명표 작성법에 한계를 지적하고, 사망과 취업의 감소와 증가가 동시에 고려된 증감모형(increment/decrement)을 적용한 노동생명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Wolfbein & Wool의 방법론을 기본모형으로 하여⁴⁾ 2000년부터 2011년 기간 중의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고자 한다. 특히 중·고령세대(45~59세)의 노동기대여명과 예상 은퇴연령을 추정하여 함의점을 제시할 것이다. 분석 활용자료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완전생명표」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다.

3) 생명표가 사망이라는 단일요인에 의한 단일감소(single decrement) 모형이라면, 노동생명표는 사망과 은퇴의 이중감소(double decrement) 모형이다.

4) 관련 선행연구로는 황수경(2003), 장지연(2002), 박원란(2001) 등이 있다.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생명표상의 정지인구, 생존자수 및 연령별 취업확률이 필요한데, 정지인구와 생존자수는 생명표의 자료를 이용하고, 취업확률은 경제활동인구자료를 이용한다.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표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명표는 연령계급별 사망률을 통해 연령별 사망확률을 산출하게 되는데, ‘연령별 사망자수(nd_x)’는 x 연령에서 $x+n$ 연령까지 사망할 사람의 수, x 연령 생존자수(l_x)에 연령별 사망확률(nq_x)을 곱한 것과 같다.

$$nd_x = l_x - l_{x+n} = l_x \cdot nq_x$$

‘연령별 사망확률(nq_x)’은 어떤 연령계층 x 에 달한 사람이 $n+x$ 세가 되기 직전까지 사망할 확률로 사망자수를 생존인구로 나눈 것과 같다.

$$nq_x = \frac{nd_x}{l_x} = \frac{l_x - l_{x+n}}{l_x}$$

‘연령별 생존자수(l_x)’는

$$l_x = \frac{nd_x}{nq_x}$$

‘연령계급별 정지인구(nL_x)’는 x 연령에서 $x+n$ 연령에 도달하는 기간 동안에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년수의 합계로 x 연령의 생존인구와 $x+n$ 연령의 생존인구의 산술평균값에 계급간격 값 n 을 곱하여 산출한다.

$$nL_x = n \cdot \left(\frac{l_x + l_{x+n}}{2} \right)$$

연령계층 이후의 정지인구의 합인 T_x 는 특정연령의 생존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살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년수의 합계이다.

$$T_x = \sum_x^{\infty} nL_x$$

이상의 노동력생명표에서 산출한 수치와 경제활동인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 노동력생명표를 작성하게 된다.



생명표상의 ‘정지인구(nL_x)’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별 취업확률(nW_x)’을 곱하여 ‘노동력 정지인구(nL_{wx})’를 산출한다.

‘연령별 취업확률(nW_x)’은 연령계급별 취업인구 / 연령계급별 총인구로 산출되며, ‘노동력 정지인구(nL_{wx})’는 연령계급별 ‘정지인구(nL_x)’에 연령별 ‘취업확률(nW_x)’을 곱하여 산출한다.

$${}_nL_{wx} = {}_nL_x \times {}_nW_x$$

‘연령계급 이후의 총 노동력 정지인구(T_{wx})’는 해당 연령 이상의 노동력 정지인구(nL_{wx})를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T_{wx} = \sum_x^{\infty} {}_nL_{w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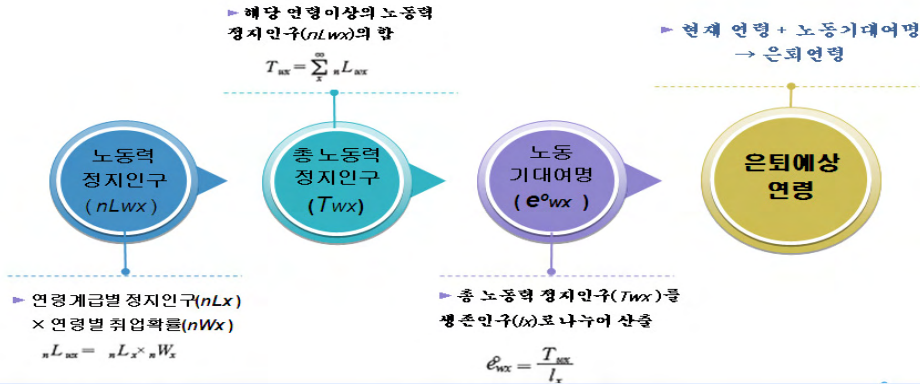
이렇게 산출된 연령계급 이후의 총 노동력 정지인구(T_{wx})를 생존인구(l_x)로 나누어 노동기대여명(e_{wx})을 산출하게 된다.

$$\text{기대여명: } e_x = \frac{T_x}{l_x}$$

$$\text{노동기대여명: } e_{wx} = \frac{T_{wx}}{l_x}$$

전술한 노동생명표 작성방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명표상의 정지인구에 취업확률을 곱하여 노동력 정지인구를 산출한다. 다음 해당연령 이상의 노동력 정지인구의 합인 총 노동력 정지인구를 산출한 후 이를 연령별 생존인구로 나누면 해당연령의 노동기대여명이 산출된다. 노동기대여명에 현재 연령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예상 은퇴연령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수행된 노동생명표는 완전생명표에 의거하여 각 세별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치 작성과정에 연령은 각 세가 아닌 5세별로 총화된 사후가중값이 부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세별 완전생명표를 이용한 노동생명표와 5세별 간이생명표를 이용한 노동생명표를 모두 작성해보고, 지난 10년간 중고령세대의 노동기대여명 및 은퇴연령의 변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 주 : 1) * 정지(靜止)인구 : 정확한 연령 x세에서의 생존자들이 x+n세에 도달하는 기간 동안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연수의 합
- 2) ** 생존인구 : 동시에 출생한 100,000명이 사망확률에 따라 사망으로 감소할 경우 x세에 도달할 때까지 살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수

[그림 3-2] 노동생명표 작성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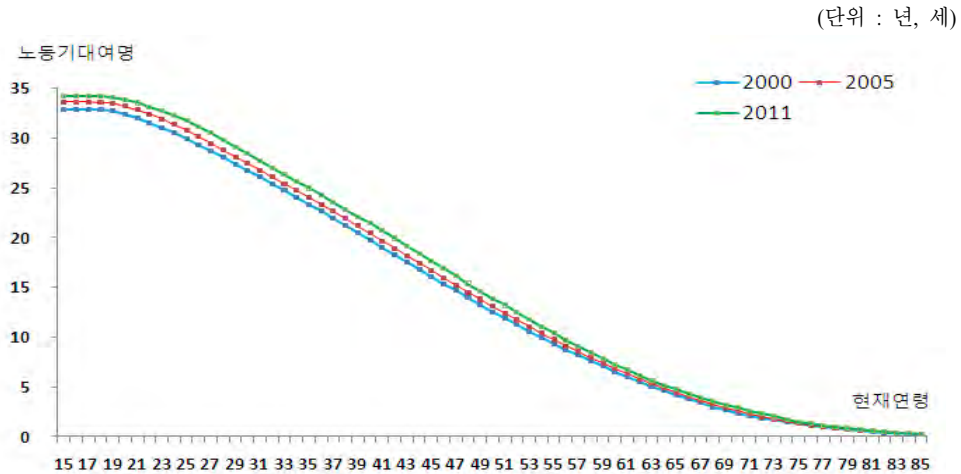
제3절 분석결과

1. 노동기대여명과 은퇴연령 변화추이

3절에서는 완전생명표와 간이생명표를 통해 노동생명표를 시점별로 작성하여 지난 10년 간 은퇴연령의 변화를 논의할 것이다. 간이생명표는 완전생명표와는 달리 각 세별 취업확률이 아닌 5세별 취업확률을 활용하여 작성된다. 5세별 취업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 정지인구를 5세별로 작성하여 노동력 정지인구와 총 노동력 정지인구를 산출하였고, 생존인구는 5세구간의 가장 최고연령의 생존자수를 활용하였다⁵⁾.

[그림 3-3]은 시점별 노동기대여명이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대여명과 노동기대여명은 감소한다. 2000년, 2005년, 2011년 세 시점의 노동기대여명 곡선을 도시한 결과, 가장 최근 시점인 2011년 노동기대여명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며, 2000년 노동기대여명 곡선이 가장 하단에 위치한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노동기대여명이 연령에 상관없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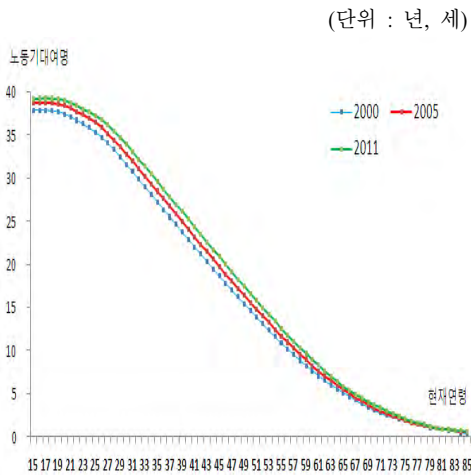
5) 기 작성 및 제공되는 간이생명표는 연령구간의 끝자리는 0, 5이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4, 9로 연령범주가 달라 완전생명표의 정지인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범주와 동일하게 묶어 5세별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였다.



자료 : 「완전생명표」,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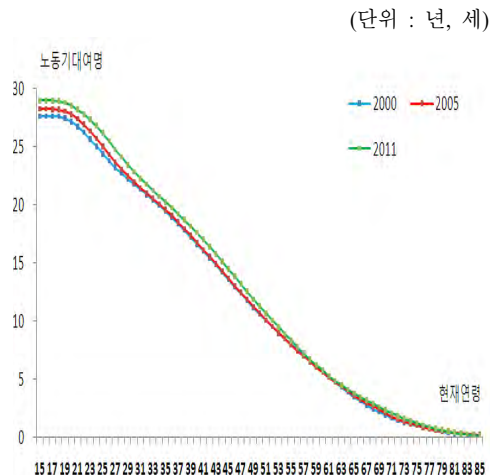
[그림 3-3] 시점별 노동기대여명 : 전체

시점별 노동기대여명 추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세 시점 간 간격이 뚜렷한 반면 여성은 시점 간 차이가 남성보다 뚜렷하지 않다. 여성은 2000년과 2005년의 노동기대여명 곡선이 30세 이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총량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시점별 기대여명의 차이는 남성의 시점별 차이에 크게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3-4], [그림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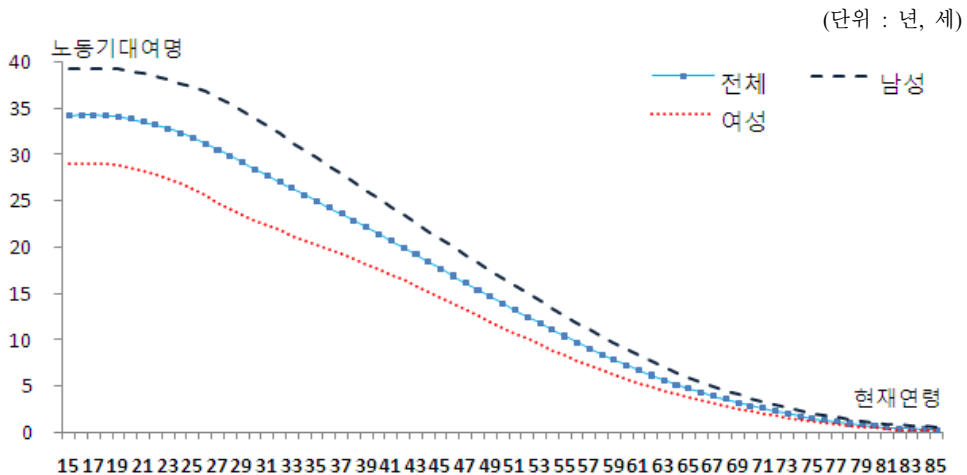
자료 : 「완전생명표」,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4] 시점별 노동기대여명 : 남성



[그림 3-5] 시점별 노동기대여명 : 여성

[그림 3-6]는 2011년 자료로 작성된 성별 노동기대여명이다. 노동기대여명은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한다는 점은 성별로 동일하나, 남성의 노동기대여명 곡선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노동기대여명의 성별 격차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자료 : 「완전생명표」,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6] 성별 노동기대여명 : 2011년

<표 3-1>은 연령대별 노동기대여명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인 청년층의 경우 현재의 취업확률로 노동기대여명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노동기대여명은 연령증가에 따라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이 이루어진 20대 이후 노동기대여명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60대 이상에 이르면 노동기대여명은 매우 짧아진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노동기대여명을 살펴보면(2011년), 20대는 31.8년, 30대는 25.3년, 40대는 18.0년, 50대는 10.8년, 60대는 5.1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1년 40대의 경우 향후 평균 18.0년 더 일하다가 최종적으로 노동시장을 은퇴할 것이며, 50대는 10.8년, 60대는 5.1년 더 일할 것임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평균 노동기대여명을 산출한 결과, 남성의 경우 20대의 평균 노동기대여명은 37.2년, 30대는 30년, 40대는 21.3년, 50대는 13.0년, 60대는 6.3년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노동기대여명은 여성보다 높다. 이는 노동기대여명 각 시점의 연령대별 취업확률이 반영된 결과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높고, 은퇴시점이 늦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연령대별 노동기대여명의 시점별 차이를 살펴보면, 2000년 대비 2011년의 노동기대여명의 증가폭은 20대는 1.7년, 30대는 1.6년, 40대는 1.5년, 50대는 1.1년, 60대는 0.6

년으로 나타난다. 성별 증가폭은 남성의 경우 30대의 증가폭이 2.3년으로 가장 크며, 여성은 20대의 증가폭이 1.6년으로 가장 크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혼인지연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고, 고령층의 은퇴지연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표 3-1> 연령별 노동기대여명 : 2000, 2005, 2011년

(단위 : 년)

연령대별 평균 노동기대여명												
	전체				남성				여성			
	2000	2005	2011	△'11-'00	2000	2005	2011	△'11-'00	2000	2005	2011	△'11-'00
20대	30.1	30.9	31.8	1.7	35.3	36.4	37.2	1.9	24.7	25.3	26.3	1.6
30대	23.7	24.4	25.3	1.6	27.7	28.9	30.0	2.3	19.6	19.8	20.5	0.9
40대	16.5	17.1	18.0	1.5	19.1	20.2	21.3	2.2	13.9	14.0	14.8	0.9
50대	9.7	10.1	10.8	1.1	11.3	12.1	13.0	1.7	8.3	8.2	8.7	0.4
60대	4.5	4.7	5.1	0.6	5.4	5.8	6.3	0.9	3.8	3.9	4.0	0.2

자료 : 완전생명표(2001, 2005,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2000, 2005, 2011)

<표 3-2>는 간이생명표로 작성된 노동기대여명이다. 2011년 기준 연령대별 노동기대여명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진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인 25~29세 연령층의 노동기대여명은 31.9년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기대여명은 점차 감소하는데, 35~39세 25.1년, 45~49세 17.8년, 55~59세 10.6년, 65~69세 5.0년으로 감소한다.

완전생명표로 작성된 것(<표 3-1>)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노동기대여명은 여성보다 길다. 남성의 경우 25~29세의 노동기대여명은 37.5년, 여성은 26.3년으로 남성의 노동기대여명이 여성보다 11.2년 더 길다. 35~39세의 경우 남성의 노동기대여명은 29.8년, 여성은 20.3이며, 45~49세는 남성 21.2년, 여성 14.6년, 55~59세는 남성 13.0년, 여성 8.4년으로 나타난다.

시점별 노동기대여명의 증감을 살펴보면, 2001년에서 2011년 기간 중 남성의 노동기대여명의 증가폭이 여성보다 높다. 남성의 노동기대여명 증가폭은 35~39세와 40~44세의 경우 2.2년 증가하였으며, 30~34세 역시 2.1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의 노동기대여명 역시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남성에 미치지 못한다. 여성은 25~29세의 노동기대여명이 1.7년 증가하여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완전생명표로 추정된 <표 3-1> (남성은 30대, 여성은 20대의 노동기대여명 증가폭이 높음)의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와 혼인 및 출산의 지연은 20대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 결과적으로 20대 여성의 노동기대여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연령별 노동기대여명(간이생명표) : 2001, 2006, 2011년

(단위 : 년)

	전체				남성				여성			
	2001	2006	2011	△'11-'01	2001	2006	2011	△'11-'01	2001	2006	2011	△'11-'01
15~19세	33.1	34.0	34.3	1.2	38.0	39.1	39.4	1.4	27.9	28.8	29.0	1.1
20~24세	32.7	33.7	34.0	1.3	37.7	38.9	39.2	1.5	27.4	28.4	28.6	1.2
25~29세	30.2	31.4	31.9	1.7	35.6	36.9	37.5	1.9	24.6	25.8	26.3	1.7
30~34세	27.0	28.0	28.5	1.5	31.9	33.4	34.0	2.1	21.9	22.6	22.9	1.0
35~39세	23.6	24.6	25.1	1.5	27.6	29.1	29.8	2.2	19.6	20.1	20.3	0.7
40~44세	20.0	21.0	21.6	1.6	23.3	24.7	25.5	2.2	16.8	17.2	17.7	0.9
45~49세	16.5	17.3	17.8	1.3	19.2	20.5	21.2	2.0	13.8	14.1	14.6	0.8
50~54세	12.9	13.6	14.1	1.2	15.2	16.4	17.0	1.8	10.8	11.0	11.4	0.6
55~59세	9.7	10.3	10.6	0.9	11.5	12.5	13.0	1.5	8.1	8.3	8.4	0.3
60~64세	6.9	7.4	7.5	0.6	8.3	9.0	9.3	1.0	5.8	5.9	5.9	0.1
65~69세	4.6	4.9	5.0	0.4	5.8	6.2	6.3	0.5	3.7	3.9	3.9	0.2
70~74세	2.7	3.1	3.2	0.5	3.8	4.0	4.1	0.3	2.1	2.4	2.5	0.4
75~79세	1.6	1.7	1.8	0.2	2.5	2.6	2.5	0	1.1	1.2	1.3	0.2
80~84세	0.8	0.9	0.9	0.1	1.4	1.5	1.4	0	0.5	0.6	0.6	0.1

현재 연령에 노동기대여명을 합하여 예상 은퇴연령을 추정할 수 있다. <표 3-3>은 연령대별 예상 은퇴연령이다. 2011년 주요 연령대별 예상 은퇴연령을 살펴보면, 30대는 59.8세, 40대는 62.5세, 50대는 65.3세, 60대는 69.6세로 예상 은퇴연령은 현재 연령에 노동기대여명을 합하여 산출되므로,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성별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평균 예상 은퇴연령을 산출한 결과, 남성의 경우 30대의 예상 은퇴연령은 64.5세, 40대는 65.8세, 50대는 67.5세, 60대는 70.8세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예상 은퇴연령은 여성보다 높다. 노동생명표는 그 시점의 취업확률의 통해 산출되므로 노동시장 이탈 및 재진입이 모두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은 취업자의 노동시장 생존확률로, 기대수명이 연령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과 같이 예상 은퇴연령 역시 연령상승에 따라 증가한다.

예상 은퇴연령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다. 연령대별 시점 경과에 따른 은퇴연령 증가폭을 살펴보면, 2011년의 연령대별 평균 예상 은퇴연령은 40대는 62.5세, 50대는 65.3세, 60대는 69.6세로 나타나며, 2000년 대비 각각 1.5년, 1.1년, 0.6년 상승하였다. 성별로 남성은 30~40대(△2.3세, △2.2세), 여성은 20~30대(△1.6세, △0.9세)에서 은퇴상승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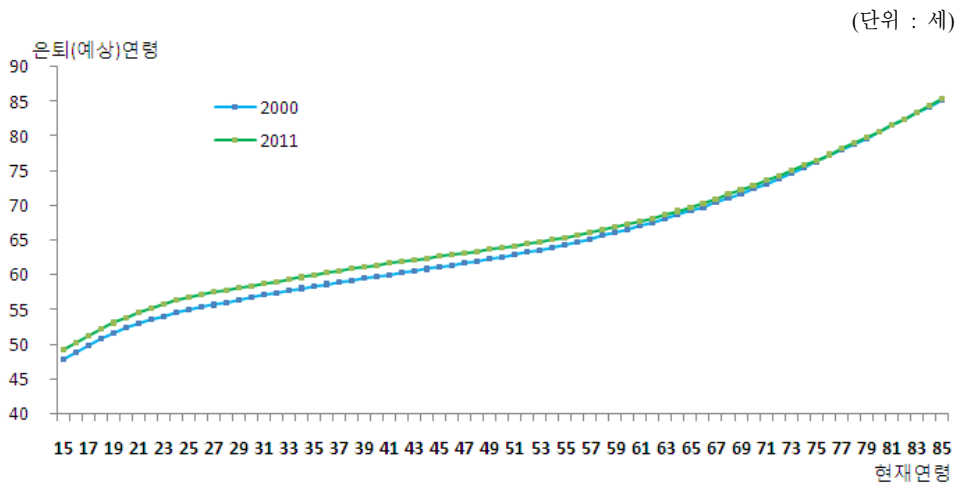
〈표 3-3〉 연령별 예상 은퇴연령 : 2000, 2005, 2011년

(단위 : 세)

	연령대별 예상 은퇴연령											
	전체				남성				여성			
	2000	2005	2011	△'11-'00	2000	2005	2011	△'11-'00	2000	2005	2011	△'11-'00
20대	54.6	55.4	56.3	1.7	59.8	60.9	61.7	1.9	49.2	49.8	50.8	1.6
30대	58.2	58.9	59.8	1.6	62.2	63.4	64.5	2.3	54.1	54.3	55.0	0.9
40대	61.0	61.6	62.5	1.5	63.6	64.7	65.8	2.2	58.4	58.5	59.3	0.9
50대	64.2	64.6	65.3	1.1	65.8	66.6	67.5	1.7	62.8	62.7	63.2	0.4
60대	69.0	69.2	69.6	0.6	69.9	70.3	70.8	0.9	68.3	68.4	68.5	0.2

자료 : 완전생명표(2001, 2005,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2000, 2005,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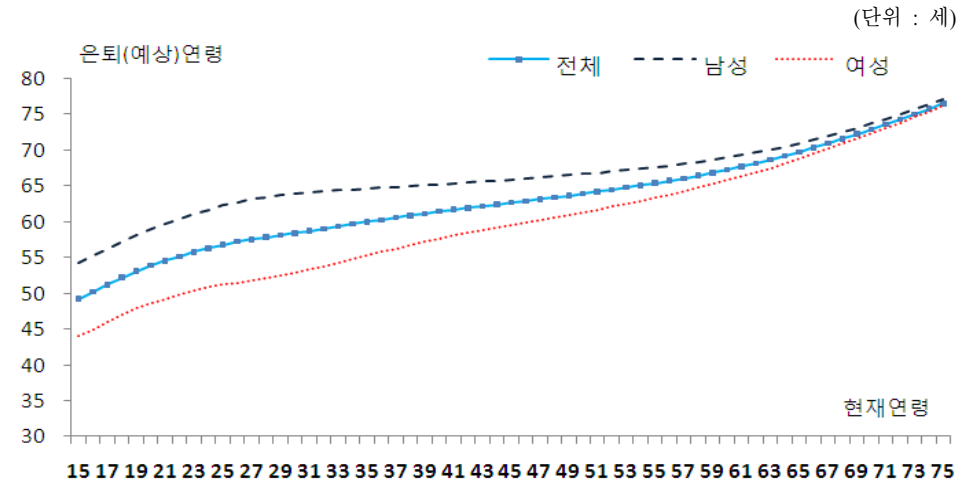
[그림 3-7]는 시점별 은퇴연령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여준다. 모든 연령대에서 2011년의 은퇴연령 곡선은 2000년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두 시점 간 간격은 65세 이후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은퇴연령 곡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예상은퇴시점이 늦어 은퇴곡선이 여성보다 상위에 위치한다([그림 3-8]). 남성과 여성의 예상 은퇴연령은 10세 가량의 차이를 보이거나, 60대 이후 성별 격차는 감소하여 수렴함을 알 수 있다.



(단위 : 세)

자료 : 「완전생명표」,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7] 시점별 예상 은퇴연령 : 전체



자료 : 「완전생명표」,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8] 성별 예상은퇴연령 : 2011년

2. 중·고령세대의 노동시장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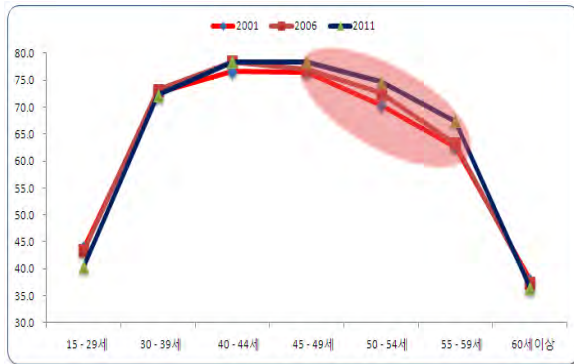
개인의 근로생애(勤勞生涯)는 대략 청년기, 장년기, 중령기, 고령기로 구분되며, 노동 시장에서 중·고령층은 통상적으로 만45세 이상을 지칭한다⁶⁾. 이들 세대는 노동시장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경우 곧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를 앞둔 세대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령층 남성의 양적 고용지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인데, 이는 남성친화적인 조직문화와 전통적 가부장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중·고령 세대의 노동시장 특성은 크게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고용의 양적지표는 총량적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이며, 질적지표는 직업 및 산업분포와 종사상 지위, 임금수준 등이다. 여기서는 중·고령세대의 노동시장 특성과 변화를 고용률, 직·산업 분포, 종사상 지위의 네 가지 차원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3-9]은 지난 10년간의 연령별 고용률이다. 세 시점(2001년, 2006년, 2011년)의 연령별 고용률 곡선을 비교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고령층(45~59세)의 고용률 상승 경향이 뚜렷하다. 40대 후반의 2001년 고용률은 76.5%에서 2006년 77.0%, 2011년 78.4%로 지난 10년간 1.9%p 상승하였으며, 동기간 50대 전반은 2001년 70.3%에서 2011년

6) 노동력 인구는 청·장년층(15~39세), 중년층(40~54세), 고령층(55세이상), 노령층(65세이상)으로 구분된다.

74.7%로 4.4%p, 50대 후반은 2001년 62.5%에서 2011년 67.4%로 4.9%p 상승하였다. 특히 40대 후반보다는 50대 전·후반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 경향이 뚜렷하다.



〈표 3-4〉 중·고령층 고용률

(단위 : %)

	2001	2006	2011
계	70.8	72.1	74.1
45 - 49세	76.5	77.0	78.4
50 - 54세	70.3	72.6	74.7
55 - 59세	62.5	63.2	67.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2001, 2006, 2011년)

[그림 3-9] 연령별 고용률 : 2001, 2006, 2011년

임금 부문에서 조기퇴직 현상이 강화된 현실에 비추어 보면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 경향은 아이러니하다.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노동력 구조에서 중·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인구효과로 볼 수 있는데, 즉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노동력 구조의 고령화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자녀세대의 교육기간 증가와 노동시장 진입 및 혼인 연령의 지연도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인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3-5>는 중·고령층의 종사상 지위이다. 2011년 중·고령세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에 비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2.5%p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12.5%p 증가하였다. 특히 상용근로자 비중은 2001년 23.0%에서 2011년 35.9%로 12.9%p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감소폭은 40대 후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지난 10년 간 16.6%p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40대 후반의 자영업자 비중은 2001년 37.9%에서 2011년 26.3%로 11.6%p 감소하였다. 중·고령층의 임금근로자 증가추세는 특히 상용직의 증가에 기인한다. 40대 후반의 상용직 비중은 2001년 25.2%에서 2011년 41.7%로 16.5%p 증가하였다. 반면 일용근로자 비중은 감소하여 50대 전반의 일용직 비중은 2001년 12.4%에서 2011년 8.8%로 3.6%p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의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종사상 지위변화는 전체 취업자의 종사상 구조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 노동력 구조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는 지속적인 감소추세

인데, 특히 중·고령층의 감소폭이 크다.

<표 3-5> 중·고령층의 종사상 지위 : 2001, 2011년

(단위 : %, %p)

	2001년(A)				2011년(B)				증감(B-A)			
	45~49	50~54	55~59		45~49	50~54	55~59		45~49	50~54	55~59	
비임금근로자	49.7	48.6	49.3	52.2	37.2	32.0	38.8	42.9	-12.5	-16.6	-10.5	-9.3
자영업자	38.7	37.9	39.0	39.9	30.4	26.3	31.8	35.0	-8.3	-11.6	-7.2	-4.9
무급가족종사자	11.0	10.7	10.3	12.3	6.7	5.8	7.0	7.9	-4.3	-4.9	-3.3	-4.4
임금근로자	50.3	51.4	50.7	47.8	62.8	68.0	61.2	57.1	12.5	16.6	10.5	9.3
상용근로자	23.0	25.2	23.0	18.7	35.9	41.7	33.5	30.4	12.9	16.5	10.5	11.7
임시근로자	15.4	15.3	15.2	16.0	18.2	18.6	18.9	16.4	2.8	3.3	3.7	0.4
일용근로자	11.9	10.9	12.4	13.1	8.7	7.6	8.8	10.3	-3.2	-3.3	-3.6	-2.8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2001, 2011)

그렇다면 중·고령층의 직·산업 분포를 살펴보자. <표 3-6>은 중·고령층의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변화이다. 중·고령층의 산업분포 변화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양상은 농림어업직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감소와 서비스직의 증가이다. 이러한 양상은 전체 노동시장 산업구조 변화와 유사한데, 지난 10년간 농림어업은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감소는 50대 후반에서 두드러진다.

2001년 50대 후반의 농림어업 비중은 22.9%였으나, 2011에는 9.8%로 13.1%p 감소하였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는 40대 후반에서 두드러지는데, 2001년 21.5%에서 2011년 30.9%로 9.4%p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고령층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자. 중·고령층 중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2001년 12.8%에서 2011년 5.5%로 7.3%p 감소한 반면, 사무직과 생산직은 각각 5.2%p, 4.8%p 증가하였다. 사무직의 증가는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전체 노동시장에서 생산직이 감소추세인 것에 반해 중·고령층의 생산직 비중은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표 3-6〉 중·고령층의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변화 : 2001, 2011년
(단위 : %, %p)

구분	2001년(A)				2011년(B)				증감(B-A)			
	45~49	50~54	55~59		45~49	50~54	55~59		45~49	50~54	55~59	
농림어업	13.5	8.5	13.4	22.9	5.9	3.5	5.9	9.8	-7.6	-5.0	-7.5	-13.1
광공업	17.0	19.3	17.0	12.6	17.7	20.6	18.0	12.7	0.7	1.3	1.0	0.1
건설업	8.9	9.4	9.0	7.7	9.7	9.1	10.3	9.9	0.8	-0.3	1.3	2.2
도소매·숙박음식업	26.8	29.5	26.2	22.5	23.7	24.2	23.9	22.7	-3.1	-5.3	-2.3	0.2
전기·운수·통신·금융	10.4	11.8	10.0	8.3	12.1	11.6	12.3	12.6	1.7	-0.2	2.3	4.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3.5	21.5	24.4	26.0	30.8	30.9	29.6	32.2	7.3	9.4	5.2	6.2
관리자·전문가	14.7	16.3	14.7	11.6	15.7	19.7	13.7	12.1	1.0	3.4	-1.0	0.5
사무종사자	4.8	6.0	4.3	3.2	10.0	12.9	9.4	6.4	5.2	6.9	5.1	3.2
서비스·판매종사자	29.1	31.3	28.2	25.8	25.3	25.4	25.6	24.7	-3.8	-5.9	-2.6	-1.1
농림어업종사자	12.8	8.0	13.0	21.7	5.5	3.2	5.5	9.3	-7.3	-4.8	-7.5	-12.4
기능·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	38.7	38.5	39.7	37.7	43.5	38.8	45.9	47.5	4.8	0.3	6.2	9.8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2001), 9차개정(2011)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2001, 2011)

3. 중·고령세대의 은퇴연령

앞서 우리나라 취업자의 노동기대여명 및 예상 은퇴연령의 전반적인 추이를 검토해보았다. 최근으로 올수록 노동기대여명과 예상 은퇴연령은 상승했으며, 특히 남성의 은퇴연령이 상승되어온 것이 관찰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 중 하나는 고령자의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이다. 사실 ‘은퇴’란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이탈 후 연금생활을 하는 중산층에 한정된 개념이다. 아직까지 노후보장체계가 미흡하고, 자녀의 교육 및 결혼에 대한 높은 부담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동생명표로 작성된 우리나라 중·고령 세대의 은퇴연령 추이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고령자의 고용률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간단히 논의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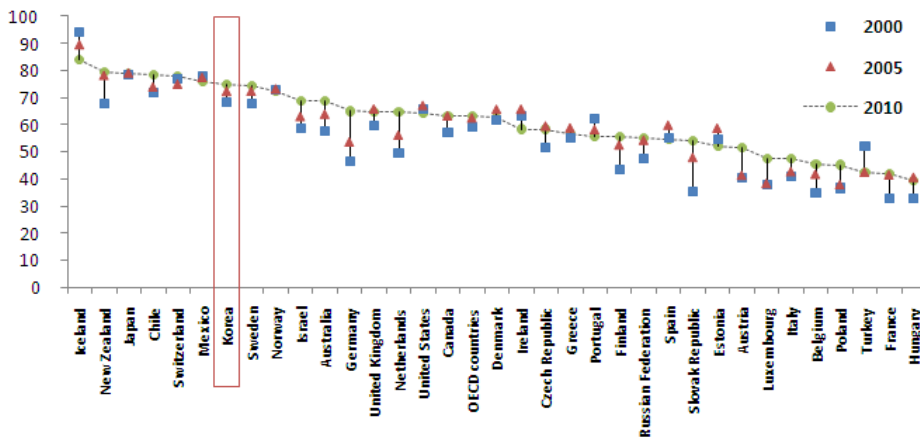
[그림 3-10]과 [그림 3-11]는 OECD 국가 고령자의 고용률이다. OECD 남성의 평균 고용률은 60% 내외로 2000년 59.2%, 2005년 62.4%, 2010년 63.0%로 점차 상승해왔다. 한편 여성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40% 수준으로, 2000년 36.7%, 2005년 41.7%, 2010년 45.4%로 남성에 비해 고용률은 낮은 수준이나 시계열적인 상승률은 좀 더 높다.

한국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은 2000년 68.5%, 2005년 72.2%, 2010년 75.1%로 10년 전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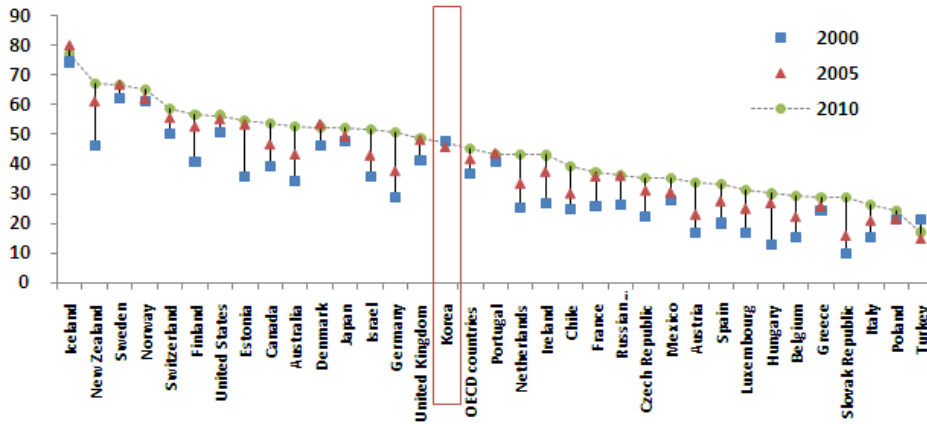
해 6.6%p 상승하였으며, 이는 OECD 국가 고령 남성의 상승률인 3.8%p보다 2.8%p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함께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78.8%), 멕시코(75.8%), 스위스(64.4%) 등이다. 반면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47.7%), 벨기에(45.6%), 폴란드(45.2%), 터키(42.7%), 프랑스(42.1%), 헝가리(39.6%) 등이다. 요약하면 북유럽국가와 아시아권, 영미권 국가들의 고령 남성 고용률이 높은 수준이고, 남유럽 국가들의 고용률은 낮은 수준이다⁷⁾.

한국 고령 남성의 고용률은 높은 수준인 반면 고령 여성의 고용률은 47.1%로 남성에 비해 매우 낮으며, OECD 국가 중 중간정도에 해당한다. 고용률 추이는 2000년 47.9%, 2005년 45.7%, 2010년 47.1%로 2005년에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 반등하였으나, 2000년 고용률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국가별 고령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스웨덴(66.8%), 노르웨이(65.0%), 스위스(58.8%), 미국(48.9%), 캐나다(53.5%) 등이 높은 수준이며, 체코(35.5%), 멕시코(35.4%), 프랑스(37.5%), 헝가리(30.1%), 이탈리아(26.2%), 폴란드(24.2%) 등은 낮은 수준이다. 북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등은 고령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높은 편이나, 멕시코, 한국, 일본 등은 고령 남성의 고용률은 높은 반면 고령 여성의 고용률은 낮다는 특성이 발견된다.



[그림 3-10] OECD 국가의 고령자(55~64세) 고용률 : 남성

7) 고령자의 고용률은 노동시장 상황, 사회복지체계, 문화적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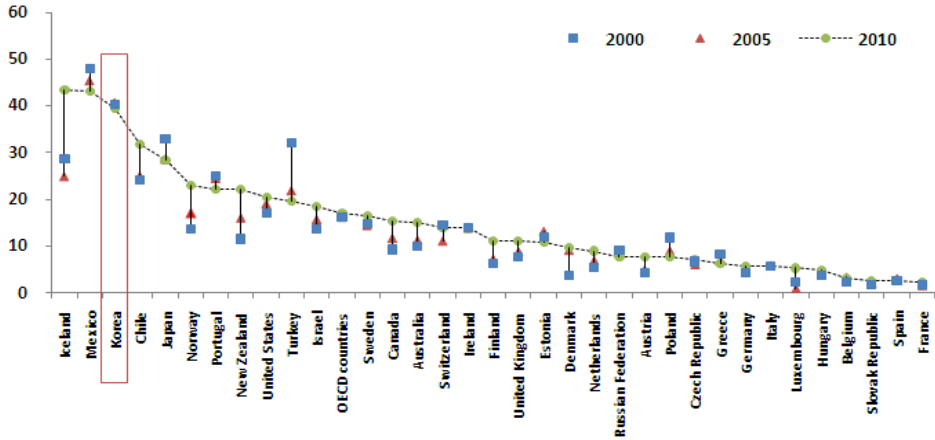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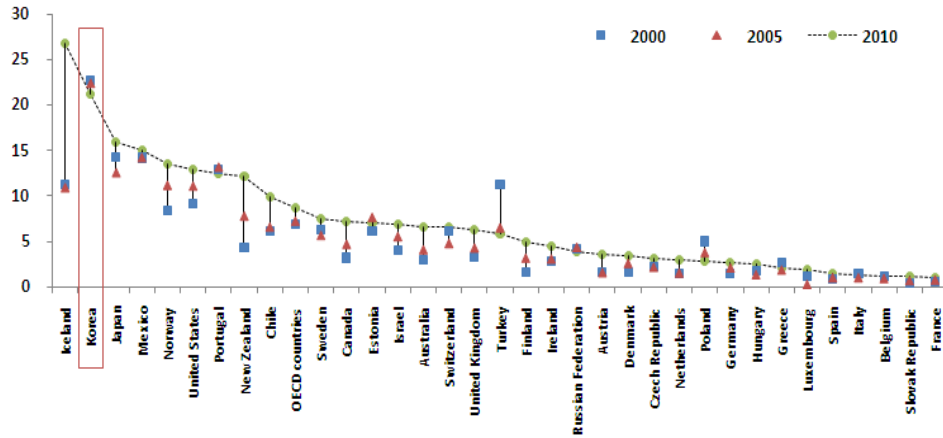
[그림 3-11] OECD 국가의 고령자(55~64세) 고용률 : 여성

그렇다면 OECD 국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 수준은 어떠한가, 한국은 어느 수준인가? [그림 3-12]와 [그림 3-13]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을 도시한 것이다. 65세면 대부분 주된 직장에서 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률은 급격히 하락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의 OECD 평균은 남성 17.1%, 여성은 8.7%로 매우 낮은 반면 한국은 남성 39.5%, 여성 21.2%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2.4%p, 12.5%p 높다. 이것은 65세 이상 고령 남성 10명 중 4명, 여성 5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고용률이 더 높은 국가는 남성의 경우 아이스란드(43.4%), 멕시코(43.3%)이며, 여성의 경우 아이스란드(26.8%)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국 고령자의 고용률은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보아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고령 남성의 높은 고용률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성별로 매우 분절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남성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1차 시장(prime market)으로 정규직 비중이 높으며, 고용 안정성과 높은 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여성 노동시장은 2차 시장(secondary market)으로 예비군적 성격을 띠며,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하다. 우리나라 남성 고용률이 높은 것은 성별 분업 문화와 함께 노동시장이 성별로 분절되어 있으며, 남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험하는 일자리는 퇴직 전 일자리에 비해 보수나 고용 안정성 면에서 하향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반면 여성은 퇴직 이후 일자리의 하향 이동 현상이 덜한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경력 형성이 남성보다 취약하고, 파트타임이나 무급종자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3-12] OECD 국가의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 남성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2011)

[그림 3-13] OECD 국가의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 여성

한국 중·고령자의 높은 고용률은 노동기대여명과 예상 은퇴연령에 큰 영향을 준다. <표 3-7>은 간이생명표로 추정된 중·고령 세대의 노동기대여명이다. 2011년 기준 40대 후반의 노동기대여명은 17.8년이며, 50대 전반은 14.1년, 50대 후반은 10.6년, 60대 전반은 7.5년이다. 시기별 노동기대여명의 증감을 살펴보면, 40대 후반의 경우 2001년 대비 2011년 1.3년이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50대 전반 Δ 1.2년, 50대 후반 Δ 0.9년, 60대 후반 Δ 0.6년)보다 노동기대여명의 증가폭이 크다.

중·고령 남성의 노동기대여명은 중·고령 여성보다 길다. 2011년 기준 40대 후반 여성의 노동기대여명은 14.6년인데 비해 동 연령대 남성은 21.2년으로 여성보다 6.6년 길며, 50대 후반 여성의 노동기대여명은 8.4년인데 비해 남성은 13.0년으로 여성보다 4.6년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중·고령 세대의 노동기대여명 : 2001, 2006, 2011년

(단위 : 년)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2001	2006	2011	△'11-'01	2001	2006	2011	△'11-'01	2001	2006	2011	△'11-'01
45~49세	16.5	17.3	17.8	1.3	19.2	20.5	21.2	2.0	13.8	14.1	14.6	0.8
50~54세	12.9	13.6	14.1	1.2	15.2	16.4	17.0	1.8	10.8	11.0	11.4	0.6
55~59세	9.7	10.3	10.6	0.9	11.5	12.5	13.0	1.5	8.1	8.3	8.4	0.3
60~64세	6.9	7.4	7.5	0.6	8.4	9.0	9.3	0.9	5.8	5.9	5.9	0.1

자료 : 완전생명표(2001, 2006,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2001, 2006, 2011)

지속적으로 살펴보았듯이 동일 시점에서 노동기대여명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그렇다면 동일 출생코호트를 추적하면 기간과 연령의 증가에 따른 노동기대여명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표 3-8>는 2011년도 중·고령 세대(45~59세) 출생코호트의 노동기대여명을 시점별로 제시한 것이다. 1962~1966년 출생코호트('11년 45~49세)의 노동기대여명은 '01년(35~39세)에는 23.6년, '06년(40~44세)에는 21.0년, '11년(45~49세)에는 17.8년으로 연령은 10년 상승한 한편 노동기대여명은 5.8년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은퇴연령은 4.2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1957~1961년 출생코호트('11년 50~54세)의 노동기대여명은 '01년(40~44세)에는 20.0년, '06년(45~49세)에는 17.3년, '11년(50~54)에는 14.1년으로 연령은 10년 상승한 한편 노동기대여명은 5.9년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은퇴연령은 4.1년 상승하였다. 1952~1956년 출생코호트('11년 55~59세)의 노동기대여명은 '01년(45~49세)에는 16.5년, '06년(50~54세)에는 12.9년, '11년(55~59)에는 9.7년으로 연령은 10년 상승한 한편 노동기대여명은 6.8년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은퇴연령은 3.2년 상승하였다.

중·고령 세대의 노동기대여명의 상승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해당 시점의 고용률 상승이 반영된 결과이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중·고령자의 고용률 상승이 코호트별 노동기대여명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연령 및 시점의 경과에 따라 중·고령자의 은퇴시점은 늦춰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3-8〉 출생코호트별 노동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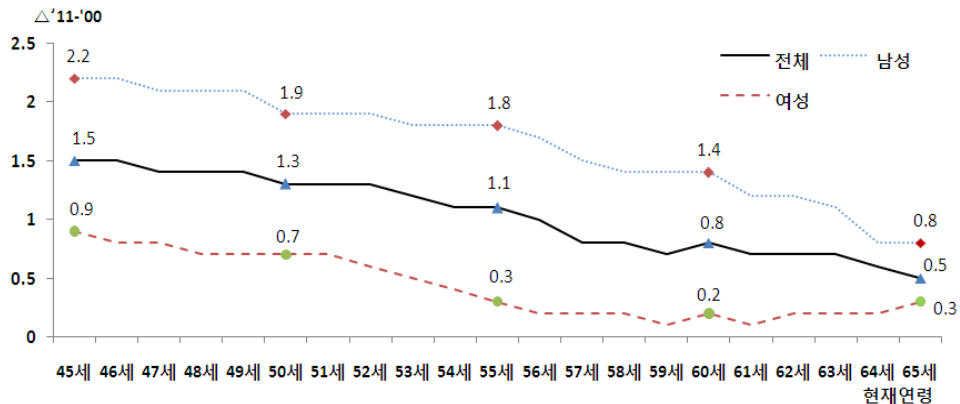
(단위 : 년)

1962~1966년 출생코호트	2001 (35~39세)	2006 (40~44세)	2011 (45~49세)
전체	23.6	21.0	17.8
남성	27.6	24.7	21.2
여성	19.6	17.2	14.6
1957~1961년 출생코호트	2001 (40~44세)	2006 (45~49세)	2011 (50~54세)
전체	20.0	17.3	14.1
남성	23.3	20.5	17.0
여성	16.8	14.1	11.4
1952~1956년 출생코호트	2001 (45~49세)	2006 (50~54세)	2011 (55~59세)
전체	16.5	12.9	9.7
남성	19.2	15.2	11.5
여성	13.8	10.8	8.1

자료 : 완전생명표(2001, 2006,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2000, 2001, 2006, 2011)

[그림 3-14]는 전체 및 성별 2000년 대비 2011년 예상 은퇴연령 증감을 도시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45세의 예상 은퇴연령은 2000년 대비 2011년 2.2세 증가하였고, 55세는 1.8세, 65세는 0.8세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45세의 예상 은퇴연령은 2000년 대비 2011년 0.9세 증가하였고, 55세와 65세는 각각 0.3세 증가하였다. 중·고령 전 연령대에서 2000년 대비 2011년 예상 은퇴연령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증가폭이 여성보다 크다.

(단위 : 세)



주 : 해당연령의 2011년 예상 은퇴연령과 2000년 예상 은퇴연령 간 차이를 제시함.

[그림 3-14] 2000년 대비 2011년 예상 은퇴연령의 증감

제4절 은퇴연령의 해외비교

앞서 노동생명표 작성결과 우리나라 중·고령자(45세 이상)는 향후 7.5 ~ 17.8년 더 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고령자의 고용률은 높은 수준으로, 특히 고령 남성의 고용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OECD는 회원국들의 은퇴연령을 조사하여 국가별 평균 은퇴연령을 제시하고 있다⁸⁾. 4절에서는 OECD 자료를 토대로 각 국의 평균 은퇴연령과 연금수급기간 및 연금수급기간 전망치 등을 제시하고 이것이 갖는 함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3-15]과 [그림 3-16]는 OECD 국가의 은퇴연령이다. OECD는 은퇴연령을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실질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으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연령을 의미한다. 둘째, '공식은퇴연령(official retirement age)'으로 정년퇴직연령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금가능연령(pensionable age)'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으로, 대체적으로 정년퇴직 연령과 유사하지만, 국가마다 두 시점 간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림 3-15]과 [그림 3-16]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실질은퇴연령은 70.3세, 여성은 69.8세로 남성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여성은 첫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실질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72.2세, 69.5세)이며, 한국(70.3세, 69.8세), 일본(69.7세, 67.3세)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터키,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등도 실질은퇴연령이 낮은 편으로 이들 국가들은 공식은퇴연령보다 낮은 시점에서 실질적인 노동시장 은퇴가 이루어진다. 이것의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은퇴자를 위한 복지체계가 미흡하거나, 고령자의 근로가 활성화되어있는 경우이다. 한국과 멕시코 등은 전자에 해당하며, 스위스나 스웨덴은 후자에 해당한다. 북부 유럽 국가들은 고용을 최선의 복지로 생각하여 고령자를 위한 고용정책과 일자리 제공이 활성화되어 있다⁹⁾.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은퇴연령은 남성 63.8세, 여성 62.4세로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공식은퇴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실질은퇴가 이루어지는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현상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공식은퇴연령과 실질은퇴연령 간 격차는 남성의 경우 오스트리아 6.1년, 벨기에 5.9년, 캐나다 1.6년, 독일 3.2년, 룩셈부르크 7.7년, 핀란드 3.2년, 네덜란드 2.9년 등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 남성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년 이전에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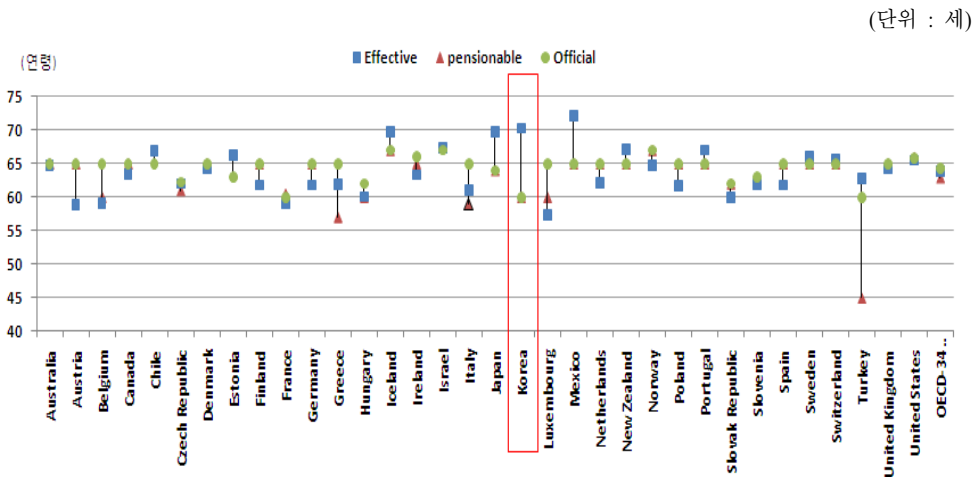
공식은퇴 이전에 실질은퇴가 이루어지는 국가는 오스트리아(2.5년), 벨기에(5.9년), 캐

8) OECD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OECD 회원국(34개국) 4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질 및 공식 은퇴연령을 조사하였다(「Pension at a Glance 2011」, OECD 2011).

9) 특히 이들 국가들은 고령자의 파트 타임 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나다(2.8년), 덴마크(3.1년), 핀란드(3.6년), 독일(4.5년), 룩셈부르크(7.0년) 등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 여성들도 조기은퇴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 스위스와 스웨덴의 경우 남성은 공식은퇴보다 늦은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하나, 여성은 반대로 조기은퇴 경향을 보인다. 영국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성은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경향이, 여성은 늦은 은퇴(late retirement) 경향이 발견된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비되지 않고, 시장체계가 발달하여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공식 정년제보다 늦은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존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멕시코, 한국, 일본, 터키 등은 공식은퇴연령보다 늦은 시점에서 실질은퇴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늦은 은퇴(late retirement) 국가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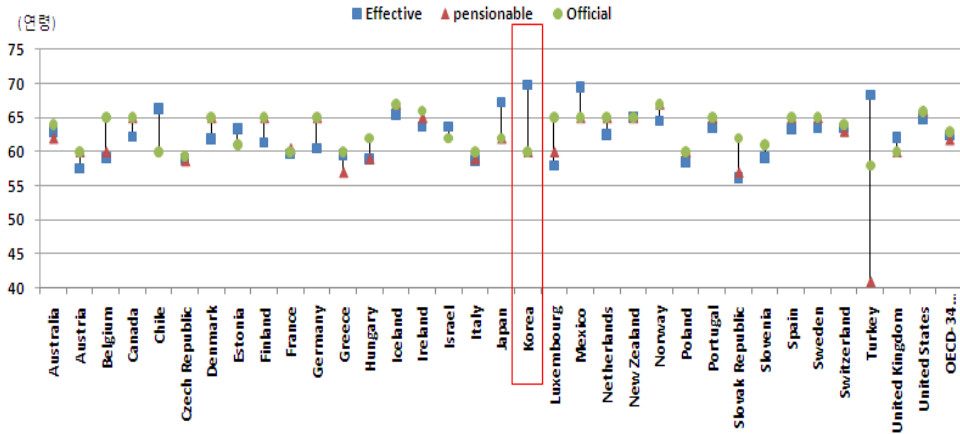
한편 공식은퇴연령은 제도적 정년시기로, 공식은퇴연령과 연금가능연령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공식은퇴연령과 연금가능연령 간 차이가 있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공식은퇴연령보다 이른 시점에 연금수급이 가능한 국가들이다. 가령 남성의 경우 벨기에(65세, 60세), 그리스(65세, 57세), 헝가리(62세, 60세), 이탈리아(65세, 59세), 룩셈부르크(65세, 60세) 등으로 이들 국가는 공식은퇴 시점보다 이른 시점에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주 : 실질 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은 실질적인 노동시장 퇴장 연령이며, 연금가능연령(pensionable age)은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 공식 은퇴연령(official retirement age)은 제도적 정년을 의미함.
 자료 : 「Pension at a Glance 2011」 : OECD 2011

[그림 3-15] OECD 국가의 은퇴연령(2011) : 남성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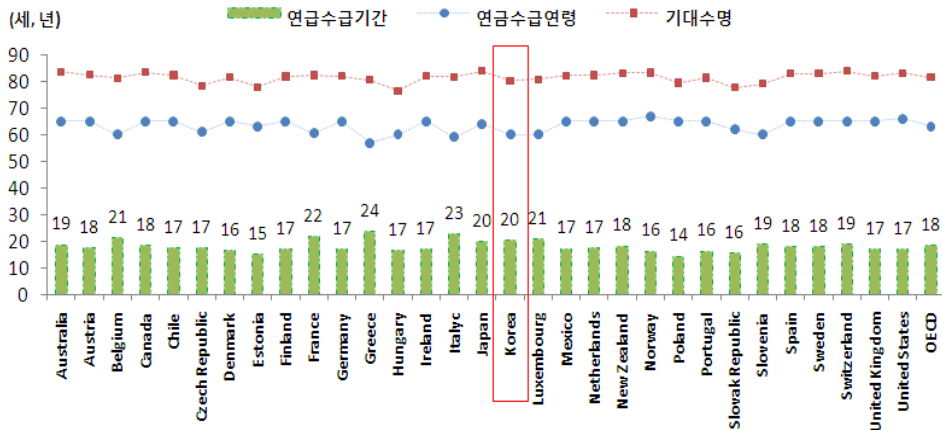
주 : 실질 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은 실질적인 노동시장 퇴장연령, 연금가능연령(pensionable age)은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 공식 은퇴연령(official retirement age)은 제도적 정년을 의미함.
 자료 : 「Pension at a Glance 2011」 : OECD 2011

[그림 3-16] OECD 국가의 은퇴연령(2011) : 여성

[그림 3-17]과 [그림 3-18]는 OECD 국가의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 및 연금수급기간이다. 각 국가별 기대수명에서 연금수급연령을 빼면 연금수급기간을 산출할 수 있다. 국가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57~67세 사이에, 여성의 경우 57~66세 사이에 분포한다. 연금수급 연령의 OECD 평균은 남성은 63.1세, 여성은 61.7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1.4년 높다. 한편 기대수명은 남성은 76세~84세에, 여성은 81세~89세에 분포하며 기대수명의 OECD 평균은 남성은 81.4세, 여성은 85.0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3.6세 높다.

기대수명에서 연금수급연령을 빼면 연금수급기간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 남성의 연금수급기간은 그리스가 24년으로 가장 길고, 이탈리아 23년, 프랑스 22년, 벨기에 21년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 남성의 예상 연금수급기간은 20년으로 일본(20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OECD 국가 남성의 평균 연금수급기간은 18년으로 한국은 OECD 평균(18년)보다 연금수급기간이 2년 정도 더 길다. 한편 OECD 국가 여성의 연금수급기간을 살펴보면 그리스와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일본이 27년으로 가장 길고, 벨기에 26년, 오스트리아와 호주, 룩셈부르크 등이 25년으로 나타난다. 한국 여성의 예상 연금수급기간은 25년으로 OECD 평균(23년)보다 2년 정도 길다. 여성은 남성보다 연금수급연령이 낮고, 기대수명이 높기 때문에 예상 연금수급기간은 남성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세,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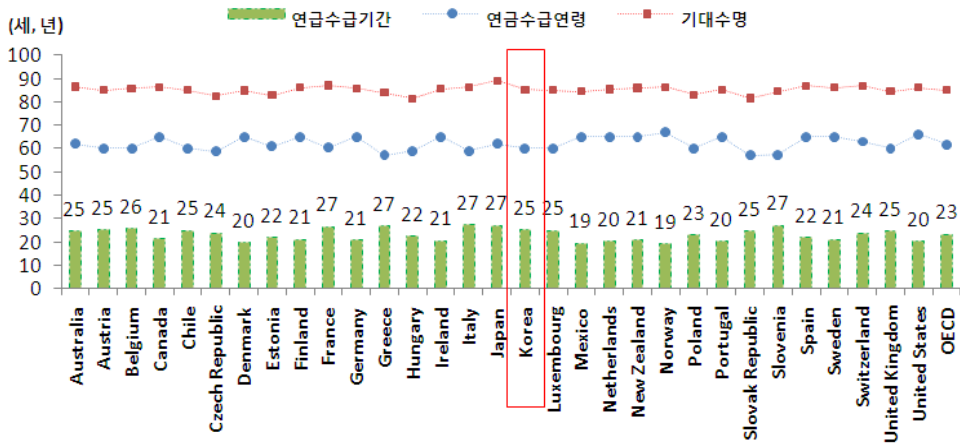


주 : $\text{연금수급기간} = (\text{각 국가별 기대수명} - \text{각 국가별 연금수급연령})$

자료 : 「Pension at a Glance 2011」 : OECD 2011

[그림 3-17] OECD 국가의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 및 연금수급기간(2011) : 남성

(단위 : 세, 년)



주 : $\text{연금수급기간} = (\text{각 국가별 기대수명} - \text{각 국가별 연금수급연령})$

자료 : 「Pension at a Glance 2011」 : OECD 2011

[그림 3-18] OECD 국가의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 및 연금수급기간(2011)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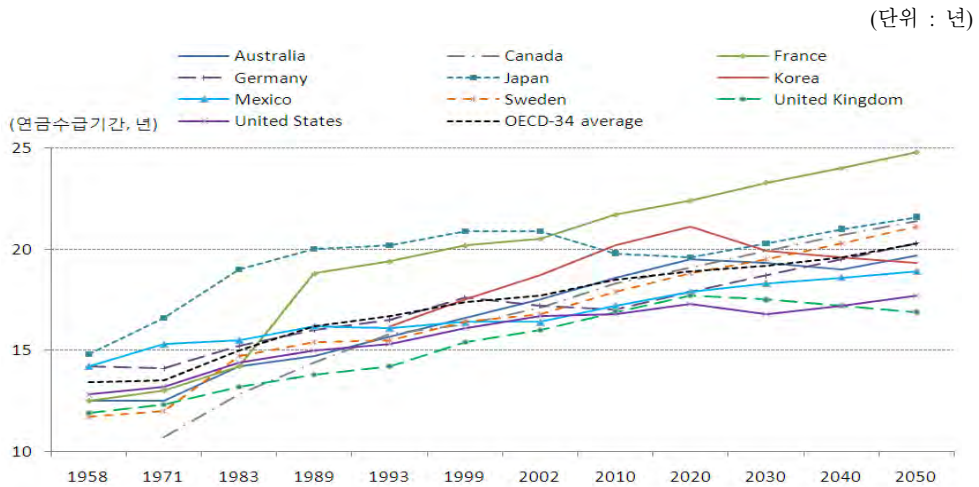
연금수급기간을 과거와 미래로 확장하여 OECD 국가의 연금수급기간을 전망한 것이 [그림 3-17]와 [그림 3-18]이다. OECD는 연금수급기간의 변동추이에 따라 수급기간의 변동이 심한 국가, 변동이 적은 국가, 변동이 거의 없는 국가로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연금수급기간의 변동이 심한 국가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는 남성의 경우 체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등으로 한국과 일본도 이 유형에 속한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연금수급기간이 크게 증가한 후 꾸준한 증가추세이며, 일본은 2000년대 초반이후 연금수급기간은 감소하였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2020년까지 연금수급기간은 급격히 증가하나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2000년까지 연금수급기간이 급격히 증가한 후 감소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경우 연금수급기간의 변동이 심한 국가는 헝가리와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호주 등으로 한국과 일본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남성의 연금수급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여성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수급기간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한다. 벨기에는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금수급기간이 급속히 증가하며, 미국은 2010년 이후 연금수급기간이 감소한다.

두 번째 유형은 연금수급기간의 변동이 적은 국가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는 남성의 경우 캐나다, 독일, 영국, 호주, 덴마크, 스웨덴, 미국 등이다. 이들 국가의 연금수급기간은 대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완만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호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등으로 한국과 일본 또한 이 유형에 속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1990년대 이후 연금수급기간이 크게 상승하며, 한국은 완만히 상승하다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소폭 하락한다.

마지막 유형은 연금수급기간에 변화가 없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남성의 경우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등으로 1970년대 이후 연금수급기간은 완만히 상승하지만 구간별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 핀란드,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등으로 1960년대 이후 연금수급기간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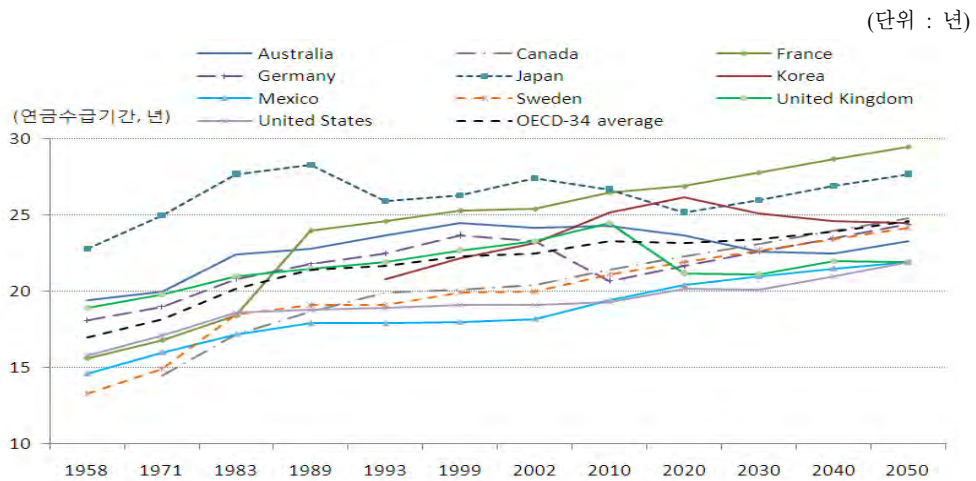
연금수급기간은 연금개시 연령과 기대수명에 영향을 받는다.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간의 증가에 따라 연금수급연령 또한 상승한다. 한편 여성의 은퇴연령이 남성보다 이른 반면, 기대수명은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의 연금수급기간은 남성보다 길다. 2010년 OECD 국가의 연금수급기간은 남성 18.3년, 여성 23.3년으로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5년 정도 연금수급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 : 예상 연금수급기간 = (각 국가별 기대수명 - 각 국가별 연금수급개시 연령)

자료 : 「Pension at a Glance 2011」 : OECD 2011

[그림 3-19] OECD 국가의 연금수급기간 전망(1958~2050년) : 남성



주 : 예상 연금수급기간 = (각 국가별 기대수명 - 각 국가별 연금수급개시 연령)

자료 : 「Pension at a Glance 2011」 : OECD 2011

[그림 3-20] OECD 국가의 연금수급기간 전망(1958~2050년) : 여성

제5절 맺음말

본 연구는 노동생명표 작성을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기대여명 및 은퇴연령을 추정하고, 다른 국가와 은퇴연령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시점을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 간의 노동기대여명과 은퇴연령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노동기대여명은 상승해왔다. 시점별 노동기대여명 추이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은 시점 간 상승 경향이 뚜렷한 반면 여성은 시점 간 차이가 남성보다는 뚜렷하지 않았다. 따라서 총량적 수준의 시점별 노동기대여명의 차이는 주로 남성의 노동기대여명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평균 노동기대여명의 2000년 대비 2011년의 증가폭을 살펴보면, 20대 1.7년, 30대 1.6년, 40대 1.5년, 50대 1.1년, 60대 0.6년 증가하였다. 성별 증가폭은 남성의 경우 30대의 증가폭이 2.3년으로 가장 크며, 여성의 경우 20대의 증가폭이 1.6년으로 가장 크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혼인지연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둘째, 예상 은퇴연령은 최근시점으로 올수록 증가하였다. 시점 경과에 따른 은퇴연령 증가폭을 살펴보면 20~40대의 상승경향이 뚜렷하며, 성별로는 남성의 은퇴연령 증가 폭이 여성보다 크다. 남성은 30~40대($\Delta 2.3$ 세, $\Delta 2.2$ 세), 여성은 20~30대($\Delta 1.6$ 세, $\Delta 0.9$ 세)의 은퇴상승 경향이 뚜렷하다. 2011년의 연령대별 평균 예상 은퇴연령은 40대는 62.5세, 50대는 65.3세, 60대는 69.6세로 나타나며, 2000년 대비 각각 1.5년, 1.1년, 0.6년 상승하였다.

셋째, 중·고령 세대(45~59세) 노동기대여명을 출생코호트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1962~1966년 출생코호트('11년 45~49세)의 노동기대여명은 5.8년 감소하여 은퇴연령은 4.2년 상승하였으며, 1957~1961년 출생코호트('11년 50~54세)의 노동기대여명은 5.9년 감소하여 은퇴연령은 4.1년 상승하였고, 1952~1956년 출생코호트('11년 55~59세)의 노동기대여명은 6.8년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은퇴연령은 3.2년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중·고령 세대의 노동기대여명의 상승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해당 시점의 고용률 상승이 반영된 결과이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중·고령자의 고용률 상승이 코호트별 노동기대여명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연령 및 시점 경과에 따라 중·고령자의 은퇴시점은 늦춰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넷째, 한국 중·고령자의 은퇴연령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다. 한국 남성의 실 은퇴연령은 70.3세, 여성은 69.8세로 남성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여성은 첫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은퇴연령은 남성 63.8세, 여성 62.4세로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공식은퇴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실질은퇴가 이루어지는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연금수급연령의 OECD 평균은 남성은 63.1세, 여성은 61.7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1.4년 높으며, 연금수급 연령은 남성은 57~67세 사이에, 여성은 57~66세 사이에 분포한다. 한편 기대수명과 연금가능연령을 통해 2050년까지 OECD 국가의 연금수급기간을 전망하였다. 한국 남성의 예상 연금수급기간은 20년으로 일본(20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OECD 남성 평균(18년)보다 2년 정도 더 길다. 또한 한국 여성의 예상 연금수급기간은 25년으로 OECD 평균(23년)보다 2년 정도 길며, 남성보다 약 5년 길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연금수급연령은 낮은 반면, 기대수명은 높기 때문이다.

최근의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청년층 고용지표는 악화되어 가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포진한 중·고령층 고용지표는 매우 양호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만55세’ 이르러 기업의 정년 시점에 도달하면서 노동시장의 대량은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고령층의 고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다. 우선 기대수명이 증가하나, 고령자를 위한 복지체계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년세대는 고령세대의 자녀세대로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혼인 시기의 지연은 고령층의 은퇴시기를 늦추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멕시코 등과 같이 공식은퇴연령(official retirement age)보다 실질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된다. 본고의 노동생명표 추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령층은 향후 10.6년 ~ 17.8년 더 일하여, 65.3세 ~ 68.1세에 최종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은퇴’란 중산층 계급에 한정된 개념으로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잔여 근로를 지속하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현실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고령 취업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퇴직 후 경험하는 일자리들은 보통 이전 직장에 비해 임금이 낮고 고용안정성 면에서 지위가 매우 하락한 일자리들이다. 한편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예견되는 바, 향후 고용시장 정책은 고령인력의 활용 및 재취업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박경애 · 최기홍(2006), 「증감노동생명표에 의한 노동기대여명의 측정과 전망」 한국인구학 제29 권 제3호
- 박원란(2001), 「생명표에 의한 한국 남성의 노동기간 변화」 『통계분석연구』 제6권 제1호
- 장지연 외(2009), 『중·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외(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 호정화(2002),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2호, pp. 1~21
- 황수경(2005), 「노동생명표 작성법을 이용한 은퇴연령의 추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Garfinkle, Stuart(1957), "Tables of Working Life for Women" BLS Bulletin 1204.
- Garfinkle, Stuart(1965), "The Lengthening of Working Life and It's Implication" World Conference Belgrade.
-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 Smith, Shirley(1982), "Tables of Working Life: The Increment/Decrement Model" BLS Bulletin 2135.
- Wolfbein, Sseymour and Hharold Wool(1950), "Table of Working Life : Length of Workinglife for men" BLS Bulletin 1001.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부표 1〉 OECD 국가의 은퇴연령

	남성			여성		
	실질 은퇴연령	연금 가능연령	공식 은퇴연령	실질 은퇴연령	연금 가능연령	공식 은퇴연령
호주	64.8	65.0	65.0	62.9	62.0	64
오스트리아	58.9	65.0	65.0	57.5	60.0	60
벨기에	59.1	60.0	65.0	59.1	60.0	65
캐나다	63.4	65.0	65.0	62.2	65.0	65
칠레	66.9	-	65.0	66.3	-	60
체코	62.0	61.0	62.2	59.0	58.7	59
덴마크	64.4	65.0	65.0	61.9	65.0	65
에스토니아	66.2	-	63.0	63.4	-	61
핀란드	61.8	65.0	65.0	61.4	65.0	65
프랑스	59.1	60.5	60.0	59.7	60.5	60
독일	61.8	65.0	65.0	60.5	65.0	65
그리스	61.9	57.0	65.0	59.6	57.0	60
헝가리	60.0	60.0	62.0	58.9	59.0	62
아일랜드	69.7	67.0	67.0	65.4	67.0	67
아일랜드	63.3	65.0	66.0	63.7	65.0	66
이스라엘	67.4	-	67.0	63.7	-	62
이탈리아	61.1	59.0	65.0	58.7	59.0	60
일본	69.7	64.0	64.0	67.3	62.0	62
한국	70.3	60.0	60.0	69.8	60.0	60
룩셈부르크	57.3	60.0	65.0	58.0	60.0	65
멕시코	72.2	65.0	65.0	69.5	65.0	65
네덜란드	62.1	65.0	65.0	62.6	65.0	65
뉴질랜드	67.1	65.0	65.0	65.0	65.0	65
노르웨이	64.7	67.0	67.0	64.5	67.0	67
폴란드	61.7	65.0	65.0	58.5	60.0	60
포르투갈	67.0	65.0	65.0	63.6	65.0	65
슬로바키아	59.9	62.0	62.0	56.2	57.0	62
슬로베니아	62.0	-	63.0	59.2	-	61
스페인	61.8	65.0	65.0	63.4	65.0	65
스웨덴	66.0	65.0	65.0	63.6	65.0	65
스위스	65.7	65.0	65.0	63.5	63.0	64
터키	62.8	44.9	60.0	68.3	41.0	58
영국	64.3	65.0	65.0	62.1	60.0	60
미국	65.5	66.0	65.8	64.8	66.0	65.8
OECD 34개국 평균	63.8	62.9	64.3	62.4	61.8	62.9

자료 : 「Pension at a Glance 2011」 : OECD 2011

주 : 실질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은 실질적인 노동시장 퇴장연령, 연금가능연령(pensionable age)은 연금수급이 개시되는 연령, 공식은퇴연령(official retirement age)은 제도적 정년을 의미함.

〈부표 II〉 OECD 국가의 연금수급기간 전망 : 남성

남성	연금수급기간											
	1958	1971	1983	1989	1993	1999	2002	2010	2020	2030	2040	2050
호주	12.5	12.5	14.2	14.7	15.7	16.6	17.5	18.6	19.5	19.3	19.0	19.7
오스트리아	12.0	12.0	13.1	14.3	14.7	15.7	16.0	17.5	18.7	19.5	20.3	21.1
벨기에	15.3	15.3	16.6	17.6	18.1	19.2	19.4	21.1	22.3	23.1	24.0	24.8
캐나다	-	10.7	12.8	14.4	15.8	16.3	17.1	18.3	19.1	19.9	20.7	21.4
체코	15.4	14.2	14.3	14.8	15.7	16.9	16.5	17.0	16.9	17.8	17.2	18.1
덴마크	13.7	11.7	11.9	12.2	12.0	13.0	13.4	16.4	17.1	15.8	16.5	17.2
핀란드	11.5	11.4	13.0	13.9	14.1	15.2	15.5	16.8	17.6	18.3	19.1	19.8
프랑스	12.5	13.0	14.2	18.8	19.4	20.2	20.5	21.7	22.4	23.3	24.0	24.8
독일	14.2	14.1	15.2	16.0	16.5	17.6	17.2	17.0	17.9	18.7	19.5	20.3
그리스	19.9	20.7	21.6	22.4	22.7	23.1	22.7	24.0	21.8	22.5	23.3	24.1
헝가리	15.6	15.1	14.5	14.8	14.5	14.9	15.6	16.5	14.4	14.5	15.4	16.3
아일랜드	-	-	13.5	14.0	14.7	14.9	15.8	16.8	17.5	18.3	19.1	19.8
아일랜드	7.6	7.7	7.9	13.1	13.4	14.1	15.2	16.9	17.7	18.5	19.2	20.0
이탈리아		16.7	17.1	23.6	24.2	25.4	23.8	22.8	21.7	19.4	20.1	20.9
일본	14.8	16.6	19.0	20.0	20.2	20.9	20.9	19.8	19.6	20.3	21.0	21.6
한국	-	-	-	-	16.2	17.5	18.7	20.2	21.1	19.9	19.6	19.3
룩셈부르크	12.5	11.4	12.9	13.8	17.8	19	19.2	20.8	22.1	23.0	23.8	24.6
멕시코	14.2	15.3	15.5	16.2	16.1	16.4	16.4	17.2	17.9	18.3	18.6	18.9
네덜란드	13.9	13.3	13.7	14.3	14.4	15.1	15.7	17.3	18.1	19.0	19.8	20.6
뉴질랜드	-	15.7	16.8	17.9	18.8	19.0	17.9	18.1	19.0	19.7	20.5	21.2
노르웨이	9.5	8.9	12.5	12.7	12.8	13.7	14.3	15.7	16.6	17.3	18.1	18.9
폴란드	15.9	15.0	15.7	14.3	14.2	15.0	13.9	14.4	14.9	15.6	16.4	17.2
포르투갈	12.4	11.8	13.4	14.3	14.2	15.0	15.5	16.3	17.1	17.8	18.5	19.2
슬로바키아	16.6	15.5	15.3	15.3	16.1	15.9	16.1	14.9	15.7	16.6	17.6	18.6
스페인	13.1	13.7	14.9	15.6	15.9	16.2	16.6	17.9	19.0	19.9	20.6	21.4
스웨덴	11.7	12.0	14.7	15.4	15.5	16.4	16.8	17.9	18.8	19.5	20.3	21.1
스위스	12.9	13.3	14.6	15.5	15.9	16.9	17.5	18.9	20.0	20.8	21.6	22.4
터키	-	14.6	29.2	29.9	30.5	31.1	31.5	31.1	28.4	24.5	21.0	22.5
영국	11.9	12.3	13.2	13.8	14.2	15.4	16.0	16.9	17.7	17.5	17.2	16.9
미국	12.8	13.2	14.4	15.0	15.3	16.1	16.7	16.8	17.3	16.8	17.2	17.7
OECD 34개국평균	13.4	13.5	15.0	16.2	16.7	17.4	17.7	18.5	18.9	19.2	19.6	20.3

자료 : 「Pension at a Glance 2011」 : OECD 2011

주 : 예상연금수급기간 = (각 국가별 기대수명 - 각 국가별 연금수급개시 연령)

〈부표 III〉 OECD 국가의 연금수급기간 전망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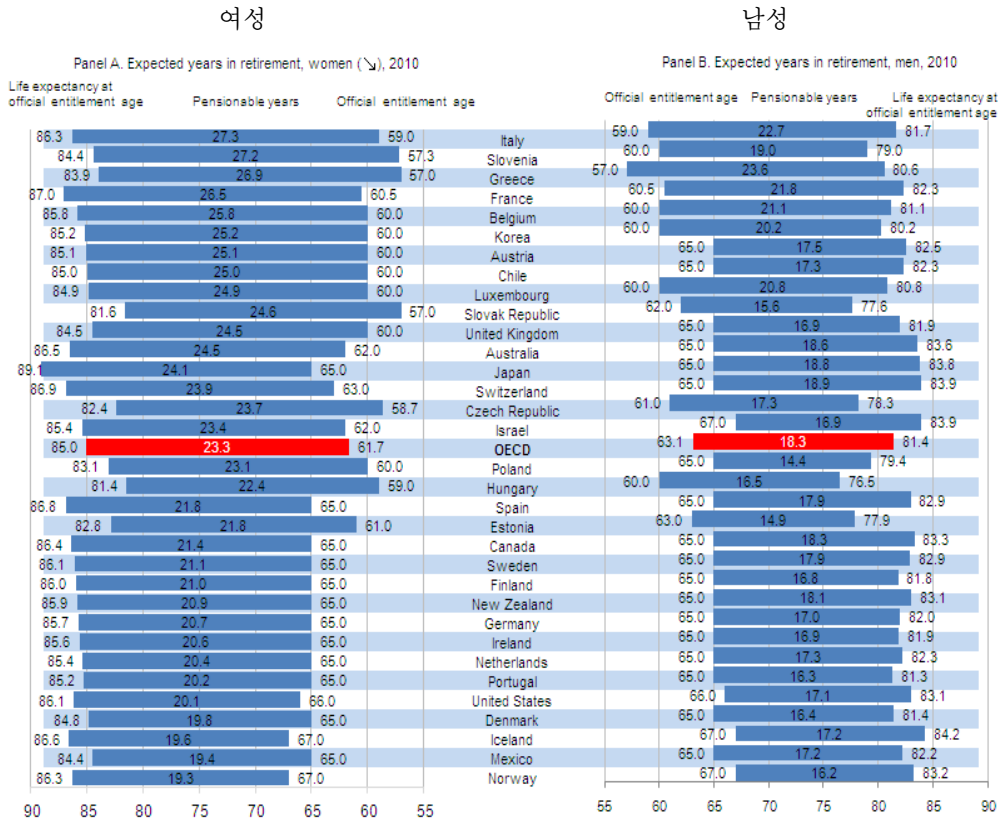
여성	연금수급기간											
	1958	1971	1983	1989	1993	1999	2002	2010	2020	2030	2040	2050
호주	19.4	20.0	22.4	22.8	23.7	24.5	24.2	24.3	23.7	22.6	22.5	23.3
오스트리아	18.6	19.0	20.6	22.1	22.6	23.7	23.8	25.1	26.1	24.6	23.6	24.5
벨기에	18.5	19.3	21.1	22.5	23.1	23.9	23.6	25.8	27.0	28.0	28.9	29.8
캐나다	-	14.5	17.2	18.7	19.9	20.1	20.4	21.4	22.3	23.1	24.0	24.8
체코	18.5	23.3	21.4	22.1	23.0	24.1	23.1	23.8	23.1	22.3	21.6	22.5
덴마크	19.3	18.6	19.6	19.9	15.6	16.1	16.6	19.8	20.8	19.6	20.3	21.0
핀란드	13.7	14.4	17.5	17.8	18.0	19.5	19.3	21.0	22.0	22.9	23.8	24.7
프랑스	15.6	16.8	18.4	24.0	24.6	25.3	25.4	26.5	26.9	27.8	28.7	29.5
독일	18.1	19.0	20.8	21.8	22.5	23.7	23.3	20.7	21.7	22.6	23.5	24.4
그리스	21.5	22.5	23.7	25.2	25.6	26.1	25.3	27.1	25.3	26.3	27.4	28.3
헝가리	22.6	23.2	23.5	24.2	24.2	24.7	25.4	22.6	19.0	19.4	20.3	21.1
아이슬랜드	-	-	16.5	17.0	17.0	17.2	18.3	19.2	20.2	21.1	22.0	22.9
아일랜드	9.4	10.0	10.6	16.5	17.0	17.6	18.6	20.6	21.6	22.5	23.4	24.3
이탈리아	-	25.2	26.5	28.1	28.8	29.9	28.1	27.4	26.3	23.7	24.6	25.5
일본	22.8	25.0	27.7	28.3	25.9	26.3	27.4	26.7	25.2	26.0	26.9	27.7
한국	-	-	-	-	20.8	22.2	23.2	25.2	26.2	25.1	24.6	24.5
룩셈부르크	14.5	14.7	16.8	17.8	22.9	24.2	23.7	24.9	25.9	26.8	27.7	28.6
멕시코	14.6	16.0	17.2	17.9	17.9	18.0	18.2	19.4	20.4	21.0	21.5	21.9
네덜란드	15.3	16.2	18.3	18.9	18.8	19.1	19.1	20.4	21.2	22.0	22.8	23.5
뉴질랜드		19.8	21.1	22.0	22.7	22.6	20.9	20.9	21.8	22.6	23.4	24.3
노르웨이	11.1	11.9	16.7	16.7	16.8	17.5	17.7	18.9	19.9	20.8	21.7	22.5
폴란드	18.7	18.9	19.9	19.9	20.1	21.0	21.8	23.1	24.0	24.9	25.8	26.6
포르투갈	14.5	14.2	16.5	19.8	19.8	20.8	18.8	20.2	21.2	22.1	22.9	23.6
슬로바키아	18.4	23.7	22.3	22.8	23.7	23.6	23.8	24.9	21.0	22.2	23	23.9
스페인	15.3	16.3	18.2	19.2	19.8	20.3	20.6	21.8	22.8	23.6	24.4	25.1
스웨덴	13.3	14.9	18.5	19.1	19.1	19.9	20.0	21.1	21.9	22.7	23.4	24.2
스위스	19.0	20.5	22.9	22.3	22.6	23.2	23.4	24.1	24.0	24.9	25.8	26.6
터키		16.0	30.8	31.9	32.5	33.1	37.2	36.9	34.7	30.9	27.2	23.2
영국	18.9	19.8	21.0	21.5	21.9	22.7	23.3	24.5	21.2	21.1	22.0	21.9
미국	15.8	17.1	18.6	18.8	18.9	19.1	19.1	19.3	20.2	20.1	21.0	21.9
OECD 34개국평균	17.0	18.2	20.2	21.4	21.7	22.3	22.5	23.3	23.2	23.4	23.9	24.6

자료 : 「Pension at a Glance 2011」 : OECD 2011

주 : 예상연금수급기간 = (각 국가별 기대수명 - 연금수급개시 연령)



[부그림 1] OECD 국가의 연금수급기간



자료 : Information on data for Israel: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